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Effects of Treatment Program for Drug Abusers in Prison

박성수*, 김우준**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덕대학 경찰행정과**

Seong-Su Park(goodcop@dreamwiz.com)*, Woo-Jun Kim(kimwj21@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중심어 : | 마약류 | 수용자 | 약물범죄 | 처우프로그램 | 교정처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e the effects of treatment program as it stands for drug abusers in prison. For this study, 46 drug-related prisoner were surveyed in January, 2008 at Jinju prison which has provided special treatments for drug-related offender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esent treatment systems or programs don't work effectively than expected. Prisoner feel present programs won't be very helpfully after release. And they feel correction officers don't have enough concern about prisoners or treatment to them. The result also emphasizes that family members or friends' support and belief is essential to prevent recidivism and to decrease such a possibility. According to this survey result, special concern to youth abuser is necessary. And it can give more effectiveness when authorities provide more medical or physical treatments than just based on routine lecturing. Futhermore, small group treayments would be more successful comparing with large member group based program. Drug abusers want more experience study or work study programs. Finally authority's, family's, friends's and colleague's interest or concern toward prisoners could contribute to raise up th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 keyword : | Drug | Drug Offender | Treatment Program | Correctional Treatment |

I. 서론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용사범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의 마약류 만연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백서(2007)’상의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밀수 등 공급조직 12개과 224명(구속162명)이 단속됨에 따른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도에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1]. 2008년 또한 10,000명에 가까운 마약류 사범이 적발되었다.

표 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 명)

| 연도별 마약류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합계 | 7,546 (-29.3) | 7,747 (2.7) | 7,154 (-7.7) | 7,709 (7.8) | 10,649 (38.1) | 9,898 (-7.1) |
| 마약 | 1,211 (53.3) | 1,203 (-0.7) | 768 (-36.2) | 868 (13.0) | 958 (10.2) | 1,396 (45.7) |
| 향정 | 4,727 (-40.3) | 5,313 (12.4) | 5,354 (0.8) | 6,006 (12.2) | 8,521 (41.9) | 7,457 (-14.2) |
| 대마 | 1,608 (-18.2) | 1,231 (-23.4) | 1,032 (-16.2) | 835 (-19.1) | 1,170 (40.1) | 1,045 (11.9) |

* 출처 :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2008.
* 주 : ()는 증감률

특히, 주종 마약류인 향정사범은 2003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감의 추세는 그 증가세가 크게 가파르다거나 수치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1999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그 이후 마약류사범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종래에 비해 증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주부나 학생,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까지 마약류 투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마약

류를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2차적으로 중대한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단약이 쉽지 않으며 그 결과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정책은 ① 마약류의 제조·유통의 차단, 관련 조직 소탕 및 자금 추적 등을 통한 공급 차단정책과 ②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교육 등을 통해 단약을 유도하는 수요감소정책이 있다[2]. 2007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의 동종재범률이 40.6%에 이르고 있으며, 마약류의 단약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점점 더 수요감소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3].

표 2. 연도별 재범률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체사범 | 7,546 | 7,747 | 7,154 | 7,709 | 10,649 |
| 재범인원 | 2,304 | 2,338 | 3,059 | 3,468 | 4,328 |
| 재범률(%) | 30.5 | 30.2 | 42.8 | 45.0 | 40.6 |

* 주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 입건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즉, 동종 범죄 재범률)

교정은 시설 내에 범죄자를 수용하여 치료·재활·교육·교화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성을 제거·감소하고 건전한 도덕성 및 사회성,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직업기술 등을 함양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바, 재범률이 높고 수용과 치료의 병행 필요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해악이 심각한 마약류 사용사범의 경우 적절한 교정처우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교정시설은 시간·장소 기타의 조건이 통제된 폐쇄적 상황으로 교정처우는 자율의지에 의해 단약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의 1심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모두 2,398건이었으며(2007년의 경우에는 3,038건)[4], 이는 같은 해에 마약류 관련 사범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경우인 1,285건보다[5]

1,113건이나 많은 실정으로 여전히 시설 내 수용을 통한 처우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처우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구금을 위한 곳이고, 치료 처우는 두 번째 관심사라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으나[6], 치료와 재활, 교육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최근의 교정 이념적인 측면과 구금상태에서의 집중적인 강제치료의 효과성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마약류 사용사범 치료시설로서의 교도소의 의미는 매우 크다. 마약류 사용의 문제는 단지 강력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행하고 철저한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사용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마약류마다 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이므로 그들을 처우하고 감시하는 시스템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7].

그러므로 이 연구는 관련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사범의 원인을 조명한다. 또한, 실증조사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수용자의 프로그램 효과와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효과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라 함은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8].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 중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 1호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제2조 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유독물과 관찰물질은 대통령령의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함에 따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마약류라 함은 이렇듯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물질을 지칭하기로 한다.

행위적 측면에서의 마약류 사용사범을 정의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 논의들이 있다. 소위 광의적 의미에서의 ‘약물남용(drug abuse)’이라고 함은 ① 마약류 물질, 마리화나, 기타 유해약물들을 불법적이고 부적절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나아가 ② 상기 물질들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 매매, 운반, 제조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9]. 그러나 통상적으로 ‘약물남용’이라고 함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손상과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물섭취·복용행위를 의미한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을 위에서 살펴 본 관련 법률들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약물을 주사·경구·흡연·코흡입·용해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여 복용한 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교정은 시설 내에 범죄자를 수용하여 치료·재활·교육·교화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성을 제거·감소하고 건전한 도덕성 및 사회성,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직업기술 등을 함양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교정처우란 이러한 교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조치와 대우를 말한다.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교정처우는 시설 내 수용에서 비롯되는 일반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외에도 약물검사·약물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 심리극·심리치료 등의 심리적 처우, 개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의 상담프로그램, 각종 시청각교육·수강교육 및 토론, 명상·단전호흡 등의 이완훈련 등 특수화된 처우프로그램을 포괄한다. 미국의 교도소들에서도 단약을 유도할 적절한 강화요인을 찾아 단약의지와 결합시키는 행동변화프로그램[11], 약리학 전문가의 조력, 지지적 치료처우, 주거식 또는 외래식 치료프로그램 등 많은 처우들이 마약사범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12], 대체 약물 치료의 일환인 메타돈(methadone)치료도 활용되고

있다[13]. 영국의 교정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특화된 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심리학적인 치료처우나 특수한 약물요법을 이용한 치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마약류 중독 내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약물남용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s)’를 들 수 있다[14].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간략히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용렬이 2006년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혼거된 마약류 수용자들의 출소 후 연계 문제, 교도소에서의 마약류 복용 학습문제, 교도소 보안상의 문제, 관련 지침이 치료처우보다는 보안 및 계호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는 기본적으로 수형자의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료진과 전문가를 확보하고,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철저한 정기검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중간 교도소의 설치 및 개방처우 기회의 확대를 언급하였다[15].

이성식과 강은영이 2005년에 우리나라 성인 약물중독의 실태 및 처우에 관하여 실시한 의식조사 연구에서는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병행 또는 치료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관련기관의 교육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 약물의 해악과 손실을 부각시키는 인지치료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강선경과 윤현준이 2003년에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치료공동체적 접근이 교도소 내에서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의 일정한 강제수용은 오히려 치료환경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교정치료에 있어서 재소자들은 자율성, 인격, 자존감 등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치료공동체적 접근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약물사범 재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 기타 전문가의 역할 증대를 제안하였다[17].

송방식이 2002년에 마약류 수형자 처우실태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수용은 집단행동을 유발하며,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며, 이들 수형자는 교정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수용관리의 철저, 치료처우 강화,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 의료진·전문가의 확보, 시설의 소규모화, 구치소 단계의 처우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 검사 실시, 단약 성공자 활용, 중간 교도소 설치·운영, 관련 예산의 증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언급하였다[18].

III. 조사설계

1.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각종 설문 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을 이용해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특정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응답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상관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신상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분석해보았다.

표본의 선정은 마약류 관련 재소자의 전체 모집단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의 개수를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자를 전체 모집단으로 하여 First-stage에서 개별 교도소 수감자로 군집화(clustering)한 후 Second-stage로 진주교도소라는 특정 군집내에서의 마약류 사용 관련 재소자를 층화(stratification)집단으로 분류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가설

연구조사의 설계와 분석은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주교도소의 마약류 사용 관련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처우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측정하고 수용자들이

느끼는 욕구(need)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①약물 경력 또는 기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약물범죄의 동기 또는 원인과 관련된 사항, ③현재의 처우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④앞으로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⑤일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주교도소의 마약류 사용 관련 재소자 4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V. 결과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 일반 신상에 관한 사항

| 항목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 | 46 | 100.0 |
| | 여 | 0 | 0.0 |
| | 합계 | 46 | 100.0 |
| 연령 | 20대 | 4 | 8.7 |
| | 30대 | 19 | 41.3 |
| | 40대 | 18 | 39.1 |
| | 50대 | 5 | 10.9 |
| | 합계 | 46 | 100.0 |
| 학력 | 정규학력 없음 | 1 | 2.2 |
|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 4.3 |
| | 중학교 졸업 이하 | 8 | 17.4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7 | 58.7 |
| | 대학교 졸업 이하 | 6 | 13.0 |
| | 대학원 이상 | 2 | 4.3 |
| 합계 | 46 | 100.0 | |
| 혼인 상태 | 미혼 | 17 | 37.0 |
| | 기혼 | 19 | 41.3 |
| | 동거 | 3 | 6.5 |
| | 별거중 | 1 | 2.2 |
| | 이혼 | 5 | 10.9 |
| | 사별 | 1 | 2.2 |
| 합계 | 46 | 100.0 | |
| 직업 | 자영업 | 23 | 50.0 |
| | 판매 및 서비스업 | 7 | 15.2 |
| | 사무직 | 1 | 2.2 |
| | 생산직 | 2 | 4.3 |
| | 무직 | 7 | 15.2 |
| | 전문직 | 3 | 6.5 |

| | | |
|--------|----|-------|
| 기타 | 2 | 4.3 |
| 합계 | 45 | 97.8 |
| 결측(99) | 1 | 2.2 |
| 합계 | 46 | 100.0 |

본 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내용을 보여주는 [표 3]은 성별, 학력, 혼인상태,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 전원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41.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41.3%로 미혼인 경우(37.0%)나 이혼한 경우(10.9%) 등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자영업인 경우(50.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15.2%)하거나, 무직인 경우(15.2%)가 많았다.

2. 신뢰도분석

리커트 합산 5점 척도법을 사용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응답의 일관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 6번(교육·홍보와의 관계), 7번(유혹·강압과의 관계), 8번(사회적응과의 관계), 9번(낙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알파값이 0.749로 나타났으며, 설문 문항 13번(현재 처우의 적절성), 14번(담당직원의 관심 정도), 15번(가족·지인의 관심 정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알파값이 0.702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Cronbach 알파값이 각각 0.749와 0.702로 0.6 보다 높으므로 설문지 문항의 구성과 조사 대상자 응답의 일관성이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신뢰도 통계량

| Cronbach 알파값 | 문항 | 항목 수 |
|--------------|----------------|------|
| .749 | 6번, 7번, 8번, 9번 | 4 |
| .702 | 13번, 14번, 15번 | 3 |

3.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

3.1 마약류 경력 또는 기호와 관련된 사항

표 5.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 경력

| |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없다 | 8 | 17.4 |
| | 1번 있다 | 24 | 52.2 |
| | 2번 있다 | 10 | 21.7 |
| | 3번 있다 | 2 | 4.3 |
| | 4번 이상 있다 | 2 | 4.3 |
| | 합계 | 46 | 100.0 |

처벌 경력이 1번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마약류 관련 재소자들이 높은 재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마약류를 처음 접한 나이

| |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만16세 미만 | 2 | 4.3 |
| | 만16세 이상 ~ 만20세 미만 | 8 | 17.4 |
| | 만20세 이상 ~ 만25세 미만 | 8 | 17.4 |
| | 만25세 이상 ~ 만30세 미만 | 8 | 17.4 |
| | 만30세 이상 | 20 | 43.5 |
| | 합계 | 46 | 100.0 |

만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기 학생들이 34.8%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마약류는 중장년층에서부터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조차 마약류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7. 마약류 구입 경로

| |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가족, 친척, 친구 | 17 | 37.0 |
| | 유흥업소 종사원 | 6 | 13.0 |
| | 약물 유통 브로커 | 15 | 32.6 |
| | 폭력조직 관계자 | 5 | 10.9 |
| | 의사, 약사 등 의료인 | 1 | 2.2 |
| | 기타 | 2 | 4.3 |
| | 합계 | 46 | 100.0 |

구입경로의 경우 약물 유통 브로커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람이 3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친척, 친구를 통해 구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은 앞으로의 약물 유통과 관련한 대안들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표 6]과 [표 7]을 통해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이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약물 유통이 친구나 동료들을 통해 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대처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범행관련 마약류 (복수 응답 가능 문항)

| | | 빈도 (각 빈도 46 중) | 퍼센트 (각 100% 중) |
|----|---------------------------------|----------------------|-------------------|
| 유효 | 마약류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크랩 등) | 7 | 15.2 |
| | 향정신성의약품류 (메스암페타민, LSD, 신경안정제 등) | 29 | 63.0 |
| | 신중약물류 (엑스터시, 아바 등) | 2 | 4.3 |
| | 대마관련 약물 (대마, 대마초, 해시시 등) | 12 | 26.1 |
| | 유해흡입물질 (본드, 가스, 신나 등) | 2 | 4.3 |
| | 환각목적약물 (수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 2 | 4.3 |
| | 기타 | 1 | 2.2 |

범행과 관련한 마약류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감시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류의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오용과 남용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마약류범죄의 동기 또는 원인과 관련된 사항

표 9. 마약류사용의 주된 이유

| |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호기심 | 20 | 43.5 |
| | 주위의 권유 또는 강압으로 인해 | 4 | 8.7 |
| | 스트레스, 고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 14 | 30.4 |
| | 성적 쾌감을 위해 | 5 | 10.9 |
| | 치료(통증완화, 수면)의 목적으로/다이어트를 위해 | 1 | 2.2 |
| | 기타 | 2 | 4.3 |
| 합계 | 46 | 100.0 | |

대부분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비율이 73.9%로서 앞의 표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층의 호기심과 30대 이상 성인 남성
의 스트레스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주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마약류 사용 방지 관련 교육홍보 및 원인영향 여부

| 문항 | 마약류 사용 방지 관련교육과 홍보의 적절성 여부 | | 주변의 유혹이나 강압의 범죄 유발 가능성 | | 사회적 용도에 따른 범행 가능성 | |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범행 영향성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유효 | 매우 그렇다 | 12 26.1 | 9 19.6 | 7 15.2 | 5 10.9 | | | |
| | 그렇다 | 10 21.7 | 14 30.4 | 17 37.0 | 7 15.2 | | | |
| | 보통 이다 | 9 19.6 | 6 13.0 | 9 19.6 | 14 30.4 | | | |
| | 아니다 | 10 21.7 | 12 26.1 | 9 19.6 | 16 34.8 | | | |
| | 매우 아니다 | 3 6.5 | 3 6.5 | 2 4.3 | 2 4.3 | | | |
| | 합계 | 44 95.7 | 44 95.7 | 44 95.7 | 44 95.7 | | | |
| | 결측 | 99 | 2 4.3 | 2 4.3 | 2 4.3 | 2 4.3 | | |
| 합계 | 46 | 100.0 | 46 | 100.0 | 46 | 100.0 | 46 | 100.0 |

교육과 홍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이 50%에 가까
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과 홍
보가 마약 사용 방지를 위해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적
절한 홍보와 교육도 마약 사용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
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30%에 가까운 수치를 차
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보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방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유혹이나 강압의 범죄의 야기한다는 답
변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점에서 본인의 선택보다
는 타의에 의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의 52.2%가 사회적용도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다
고 답변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용도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범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전체의 30.4%인 것에서 응답
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
적인 시선은 범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
변이 39.1%를 차지하고 있다.

3.3 현재의 처우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표 11. 현재 처우 또는 프로그램 관련 사항

| 문항 |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진행방식 (복수 응답 문항) | |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진행방식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유효 | 강의, 주입식 진행 (교육, 강의, 회 복자, 단약자의 사례 청취 등) | 23 50.0 | 10 21.7 | |
| | 참여 유도식 진행 (토론, 발표, 상담 등) | 6 13.0 | 7 15.2 | |
| | 의료적 처우 (약물검사, 시약검사, 약물치료 등) | 6 13.0 | 12 26.1 | |
| | 신체활동적 처우 (체육활동, 등산, 야외 활동 등) | 8 17.4 | 16 34.8 | |
| | 기타 | 3 6.5 | 1 2.2 | |
| | 합계 | 46 | 100.0 | 46 |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 주입식 진행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의,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마약관련 사용사범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복수 응답은 없었다.

또한 마약사용사범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진행
방식에 대한 설문결과 신체 활동적 처우가 34.8%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적 처우와 강의, 주
입식 진행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즉, [표 10]과 비
교해 볼 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2.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수

| 문항 |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수 | |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대상 인원수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유효 | 1인 | 5 10.9 | 6 13.0 | |
| | 소수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 25 54.3 | 32 69.6 | |
| | 다수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 6 13.0 | 4 8.7 | |
| | 대상인원의 수 시변동 | 7 15.2 | 3 6.5 | |
| | 기타 | 3 6.5 | 45 97.8 | |
| 결측 | 99 | | 1 2.2 | |
| 합계 | 46 | 100.0 | 46 | 100.0 |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수에 대하여 65.2%가 10인 미만의 소수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상 인원수는 82.6%가 10인 미만의 소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표 13.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교육자료 및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교육자료

| 문항 | |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교육자료 | |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교육자료 |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유효 | 시청각자료 위주 | 23 | 50.0 | 15 | 32.6 |
| | 유인물 제공 위주 | 5 | 10.9 | 1 | 2.2 |
| | 실험 또는 체험 위주 | 8 | 17.4 | 24 | 52.2 |
| | 교육자료 활용하지 않음 | 5 | 10.9 | 1 | 2.2 |
| | 기타 | 5 | 10.9 | 5 | 10.9 |
| | 합계 | 46 | 100.0 | 46 | 100.0 |

제공되는 교육 자료에 관련하여 시청각 자료 위주의 프로그램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사용사범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자료로는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청각 자료 위주가 32.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실제적인 교육 자료는 시청각 자료 위주인데 반하여 마약사범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표 14. 처우관련 및 재범방지

| 문항 | 현재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영향성 | | 본인의 치료재활과 관련된 담당직원의 관심 | | 본인의 재활 및 사회 재적응에 대한 가족 또는 주변인의 관심 | | 경험한 교정시설 내의 처우를 통한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 |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다 | 2 | 4.3 | 1 | 2.2 | 10 | 21.7 | 5 | 10.9 |
| | 그렇다 | 6 | 13.0 | 7 | 15.2 | 12 | 26.1 | 11 | 23.9 |
| | 보통이다 | 15 | 32.6 | 15 | 32.6 | 17 | 37.0 | 15 | 32.6 |
| | 아니다 | 14 | 30.4 | 10 | 21.7 | 3 | 6.5 | 4 | 8.7 |

| | | | | | | | | | |
|----|--------|----|-------|----|-------|----|------|----|-------|
| | 매우 아니다 | 7 | 15.2 | 10 | 21.7 | | | 11 | 23.9 |
| | 합계 | 44 | 95.7 | 43 | 93.5 | 42 | 91.3 | 46 | 100.0 |
| 결측 | 99 | 2 | 4.3 | 3 | 6.5 | 4 | 8.7 | | |
| 합계 | | 46 | 100.0 | 46 | 100.0 | 46 | 100 | 46 | 100.0 |

프로그램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 영향성에 대한 설문결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17.3%인데 반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소자들이 현재의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치료재활과 관련된 담당직원의 관심에 있어서 본인의 치료재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서 프로그램의 개선과 함께 담당직원의 재소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활 및 사회 재적응에 대한 가족 또는 주변인의 관심에 대한 설문결과 재소자들은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재범예방과 사회 재적응에 가족 또는 주변인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긍정이나 부정의 응답이 각각 34.8%와 32.6%로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이 32.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의 처우가 마약류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5. 향후 마약류사용 중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 문항 | 빈도 | | 퍼센트 |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 유효 | 현재 진행 중인 처우 프로그램의 적절성 | 5 | 10.9 | | |
| | 주위에서의 유혹 내지는 강압이 없어야 | 7 | 15.2 | | |
| |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관심과 지원 | 12 | 26.1 | | |
| | 재취업, 사회적응의 지원 등 사회적 배려와 지지 | 12 | 26.1 | | |
| | 나의 의지 | 10 | 21.7 | | |
| 합계 | 46 | 100.0 | | | |

마약류사용 중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4.1 연령대(19번 문항)와 마약류를 처음 접한 나이(2번 문항)와의 상관관계 분석

표 16. 상관계수

| | | | |
|-----|--------------|-----|---------------|
| | | 연령대 | 마약류를 처음 접한 나이 |
| 연령대 | Pearson 상관계수 | 1 | .449(**) |
| | 유의확률 (양쪽) | | .002 |
| | N | 46 | 46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6]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인 연령대와 마약류를 처음 접한 나이가 0.449로 유의수준 $\alpha=0.01$ 하에서 양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2 재소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13번 문항과 14번 문항의 평균 점수)와 향후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16번 문항)과의 상관관계 분석

표 17. 상관계수

| | | | |
|---------|--------------|---------|---------------------------------|
| | | xx13_14 | 경험한 교정시설 내의 처우를 통한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 |
| xx13_14 | Pearson 상관계수 | 1 | .669(**) |
| | 유의확률 (양쪽) | | .000 |
| | N | 43 | 43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7]에서 재소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마약류사용의 중단 가능성 즉, 재범 방지 가능성이 0.669로 유의수준 $\alpha=0.01$ 하에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평균차이 검증과 회귀분석

5.1 재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재소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13번 문항과 14번 문항의 평균 점수)와 향후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16번 문항)과의 분산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귀무가설 :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은 연관성이 없다. (독립이다.)

대립가설 :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은 연관성이 있다. (독립이 아니다.)

유의수준 $\alpha=0.05$

표 18. 분산분석표

| 모형 |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1 | 선형회귀분석 | 29.901 | 1 | 29.901 | 33.233 | .000(a) |
| | 잔차 | 36.890 | 41 | .900 | | |
| | 합계 | 66.791 | 42 | | | |

위의 표에서 유의확률이 0.000(a)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마약류 사용 중단 가능성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5.2 재교육 프로그램과 재범연관성

표 19. 회귀분석 결과표

| 모형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1 | (상수) | -.122 | .572 | | -.213 | .832 |
| | xx13_14 | .918 | .159 | .669 | 5.765 | .000 |

결론 : 비표준화 계수 B를 통해 아래와 같은 회귀직선모형을 알 수 있다.

$$Y = -0.122 + 0.918XX13_14$$

(XX13_14 : 13번 문항과 14번 문항의 평균점수의 변화율)

위의 회귀직선모형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위의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량을 통해 판단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V.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현재의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마약류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에서도 이러한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약물 유통과 관련한 대안들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약물 유통이 친구나 동료들을 통해 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대처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약류사용도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교육과 홍보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 홍보가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홍보와 교육도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도 보여진다. 또한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교정시설 내의 처우가 마약류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 곳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상자 전원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교도소에 그대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운 점, 순수한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류) 이외에 기타 신종약물, 유해흡입물질, 환각목적물질 등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설정에 다소 혼란이 있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전면적인 조사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보며, 특히 단순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 [2] 이경재,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보호관찰, 제3호, pp.3-36, 2003.
- [3]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 [4]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 [5]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연보, 법무부, 2007.
- [6] B. Foster, *Corrections - The Fundamentals*, Pearson Prentice Hall, 2006.
- [7] J. Petersilia, *Community corrections :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8] 대검찰청, 2006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7.
- [9]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Field Operations Division, IACP, *Guidelines for Narcotic and Dangerous Drug Evidence Handling and Security Procedure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2006.
- [10] C. F. Levinthal, *Drugs, society, and criminal justice*, Pearson A and B, 2006.
- [11] Howard Abadinsky,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Pearson/Prentice Hall, 2006.
- [12] B. R. McCarthy, B. J. McCarthy(Jr), *Community-based corrections*, Wadsworth Pub. Co, 1997.

[13] D. J. Champion,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s*, Pearson/Prentice Hall, 2005.

[14] S. B. MacDonald, B. Zagaris, *International Handbook on Drug Control*,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1992.

[15] 최응렬,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 교정연구, 제31호, pp.35-60, 2006.

[16] 이성식, 강은영, “우리나라 성인 약물중독의 실태 및 처우에 관한 의식조사”, 교정연구, 제27호, pp.97-115, 2005.

[17] 강선경, 윤현준,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pp.85-115, 2003.

[18] 송방식, “마약류 수형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7호, pp.161-194, 2002.

김 우 준(Woo-Jun Kim)

정회원



- 2003년 9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경찰학석사)
- 2009년 1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2008년 3월 ~ 현재 : 대덕대학 경찰행정과 강사
<관심분야> : 보호관찰, 약물범죄, 소년비행, 재범방지, 사회내처우

저 자 소 개

박 성 수(Seong-Su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경찰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약물범죄, U-Policing, 지역사회범죄예방, 교정, 보호관찰